

참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함

9/16 월요일

아침의 누림

요 15:4-5

4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5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전 1:9

9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요일 1:3, 7

3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7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안에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서로 교통을 갖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요 14:16-17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 주실 것이고, 그분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17 그분은 실재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들이라는 사실을 보아야 한다(요 15:5).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들이라는 분명한 이상에 달려 있다. 우리가 이미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떨어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일단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들이라는 사실을 본다면, 우리는 우리와 포도나무 사이의 교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어떤 절연체든 그것은 우리를 포도나무의 풍성한 공급에서 분리할 것이다. 작은 불순종, 죄, 심지어 최악된 생각까지도 우리를 포도나무의 풍성에서 분리하는 절연체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유죄판결 하지 않고 그대로 붙들고 있다면, 그것들은 우리를 포도나무의 풍성한 공급에서 분리할 것이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가지들이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우리와 주님 사이의 교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것도 그 분과 우리 사이에 있게 해서는 안 된다. ... 체험에서 우리는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를 포도나무의 풍성한 공급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당신과 저 사이에 저를 당신의 풍성한 공급에서 분리하는 어떤 막힌 것도 없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34, 155-15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아들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해야 한다(요 15:4-5). ...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나 많은 때

우리는 그분께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입지나 공간을 내드리지 않는다. 주님은 우리 안에 그분께서 거하실 영역을 확장하기를 갈망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거하실 영역을 좁히려 한다. 우리는 그분을 제한한다. 거하시는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는 가벼운 다툼이 항상 있다.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영역이 우리 안에서 차츰 확장되고 있는 동안, 이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제한하려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다.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심지어 1 센티미터씩이라도 점차 더 많은 입지를 얻고자 하신다. 그러나 때로 그분께서 겨우 1 센티미터를 더 얻으시는 것을 두고서도 다툼이 벌어진다. 그리스도는 1 센티미터를 더 얻고자 하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분을 제한한다. ... 오, 그분과의 교통을 유지하며 그분께 우리 안에서 더 많은 입지를 차지하시고 확장하시도록 기꺼이 허락해 드리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 자신을 확장하시고, 원하시는 만큼의 입지를 차지하시도록 허락해드리기를 바란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생명이 성장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생명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왜 그렇게 많은 성도가 생명이 거의 자라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주님께 그들 안에서 확장되시도록 허락해 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 절연체가 없을지라도 너무 많은 제한이 있는 것이다. 이 거함의 문제는 매우 미묘하고 섬세하다.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곧 어떤 절연체도 없게 하는 것과 어떤 제한도 두지 않는 것이다. 제한을 없애기보다 절연체를 제거하기가 더 쉽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도 온갖 제한을 없앨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주님께서 인내가 많으시고 친절하신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자. 그분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기다리고 계신다. 기껏해야 그분은 얼굴을 돌리실 뿐이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은 그 정도가 전부이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허락한 곳에만 머물러 계실 것이다. 우리가 항상 그분께 우리 안에서 확장되실 입지를 드리고, 우리 내적 존재의 모든 구석과 통로 안으로 확장되시도록 허락해 드리기 위해, 그분을 바라보며 긍휼과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것이 생명이 성장하는 길이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면 마르고 죽을 것이므로 혼자 스스로 살 수 없다. 가지들과 포도나무의 관계는 우리와 주 예수님의 관계를 묘사한다. 그분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의 존재,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하는 것은 반드시 주님 안에 있어야 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끝장날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다. 그분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며,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주님께 가지들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포도나무이시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분 안에 거해야 하며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해야 한다.(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34, 156-15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34

9/17 화요일

아침의 누림

요일 2:27

27 여러분으로 말하면, 그분의 기름바름이 여러분 안에 거하니,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기름바름이 모든 것에 관하여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이 기름바름은 참되고 거짓되지 않으니,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고후 1:21

21 그러나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께로 견고하게 붙이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후 1:21

21 그러나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께로 견고하게 붙이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롬 8:4-6

4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5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은 육체의 일들을 생각하지만,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영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6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고후 2:12-13

12 더욱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갔을 때, 주님 안에서 나에게 문이 열렸으나

13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으므로 내 영 안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거룩하신 분에게서 오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은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요일 2:27). 어린이들은 이 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알고(2:13) 또한 진리를 안다(21 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신성한 기름바름을 누린다. 이 기름바름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일하는 놀라운 인격, 곧 그 영이다. 이러한 기름바름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한다.

기름바름은 내주하시는 복합되신 영께서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것으로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모든 성분과 그분의 활동을 우리의 내적 존재 안에 적용하여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우리를 그분과 완전히 연합되게 한다(요일 2:20, 27, 비교 옴 4:4-6). 더 나아가 기름바름은 우리 안에서 복합되신 영께서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바르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하나님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4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94, 106-10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기름부음 받으신 분’을 의미하는 ‘크리스토스(Christos)’이고, ‘기름바름’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크리스마(chrisma)’이다. 두 단어는 모두 같은 어근에서 파생되었다. ... 기름부음 받으신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기름바름이 되신다. 그분은 기름부음 받으신 분이시므로, 우리에게 바르실 풍성한 관유를 갖고 계신다. 결국 기름부음 받으신 분께서 기름 바르시는 분이 되신다. 사실상 그분은 심지어 기름바름이 되신다.

그리스도는 신성한 관유로 기름부음을 받으셨고, 그분 위에 있는 관유가 지금 우리에게로 흐른다. 이것은 바르는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의 제사장 옷의 옷단에게까지 흘러내리는 것을 말하는

시편 133 편에 묘사되어 있다. ... 그리스도는 관유를 받으셨고, 기름부음 받으신 분이신 그분은 결국 기름 바르시는 분이 되셨다. ... 사실상 우리 안에 거하는 기름바름은, 기름부음 받으신 분께서 기름 바르시는 분이 되시고 또한 기름바름이 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 자신을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으로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심으로, 그분 자신의 표현을 위해 우리를 그분의 배필로 만드시는 것이다. 이것을 성취하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박히심과 부활의 과정을 통과하실 필요가 있었다. ... 우리가 그분을 믿자마자, 그 영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제 그분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시면서 삼일 하나님의 요소를 우리에게 바르신다. 우리에게 삼일 하나님이 발라질수록, 삼일 하나님의 요소가 더욱더 우리 존재 안으로 옮겨 부어진다. 이러한 기름바름을 통해 우리 존재의 섬유 조직들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온 존재로 적셔질 것이다.

기름바름의 가르침은 말로 하는 외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기름바름이 우리 안에서 영적인 지각을 통해 내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이러한 기름바름의 가르침은 기름 바르시는 복합되신 영의 요소들인 신성한 삼일성의 요소들을 우리의 내적 존재 안으로 더해 준다. ...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의 모든 속부분들 안으로 옮겨 부어지시고 주입되시고 더해지신다. 그리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신성한 요소로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도록 하신다.

이러한 기름바름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일한다. 이러한 움직임의 목적은 하나님의 요소를 우리 안으로 더하는 것이다. 우리는 문자로 명시된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적인 기름바름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를 이해한다. 오늘 성령의 내적인 움직임과 기름바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요소를 더 많이 얻게 된다. 하나님의 요소가 증가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 더 분명해진다.(신약의 결론, 개정증보판, 24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94, 107-10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4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9

9/18 수요일

아침의 누림

고후 3:17

17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고전 6:17

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롬 8:4

4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잠 20:27

27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라 내적 존재의 모든 깊은 곳을 살핀다.

히 4:12

12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효력이 있으며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찢러 쪼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 3:6

6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롬 8:16

16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오십여 년 전의 나의 어린 생각으로는, 어떻게 가지인 내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분께서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영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한 영이 되셨다는 것(고전 6:17)을 본 후, 나는 가지들과 포도나무가 서로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영께서 내주하시는 거듭난 우리 사람의 영(롬 8:16, 비교 엡 2:22) 안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깨달았다. 이런 이유로 디모데후서 4 장 22 절은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한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9년, 2권, 성경의 심장과 성경의 중심 계시, 3장, 25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승천과 높이 올려지심과 관련하여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주님이시지만, 내주하심과 관련하여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 곧 거룩한 숨이시다. 그분께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시므로 우리는 그분과 한 영이다. 또 이 연합된 영, 곧 사람의 영과 연합되신 신성한 영이 포도나무이시다. 즉 신성한 영은 포도나무이시고 거듭난 사람의 영은 그 가지이다. 이 두 영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 그리고 신성한 본성 안에서 하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받아들였으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다. ... 우리의 체험에 의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때를 알기는

어렵지만, 그분 안에 거하지 않고 있는 때를 알기는 쉽다.

물질적인 몸의 생명과 관련하여 어떤 부위라도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면 아무 느낌이나 감각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우리의 위장에 어떤 느낌이 있다면 그것은 배고프다거나 잘못 먹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아무 느낌이 없을 때 우리는 위장이 건강하다는 것을 안다.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 거할 때에는 아무 느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그분 밖에 있을 때에는 즉시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안다.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멈추어야 한다. 이것이 부정적인 것과 관련된 면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비결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힘들게 하여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즉시 영적인 '복통'을 느낄지도 모른다. 그럴 때 우리는 반응하기를 멈추어야 한다. 또 다른 경우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주님 안에 거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닐 때, 우리에게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멈춤으로써 이러한 느낌에 반응해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비결을 실행한다면 주님 안에 거할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난 우리 믿는 이들은 이미 신성한 출생을 체험했다. 이 신성한 출생은 신성한 영과 우리 사람의 영을 하나로 연합시킨다. 이 영이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는 요인이 된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요인은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현재 하시는 실지적인 말씀을 사랑하고 누리게 하며, 주님을 사랑하게 한다. 그 결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정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는 그분들 안에 거한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거하심에 반드시 민감해져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주님의

거하심을 중단시키는, 그분에게서 나오지 않은 말을 하거나 태도를 보이거나 의도를 가질 때 즉시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다.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당신 안에 거하는 것을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포도나무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하는 길이다. 또한 이것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살전 5:17)과 관련되어 있다. ...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실행한다면, 주님은 연합된 영 안에서 실지적으로 그분과 하나인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으실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식으로 그분을 누릴 때,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교리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체험할 수 있는 현재의 실지적인 그리스도이시라고 모든 사람에게 증언할 수 있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9년, 2권, 성경의 심장과 성경의 중심 계시, 3장, 252-253, 25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82년, 2권, 요한의 글에 있는 성막과 제물들의 성취, 19장

9/19 목요일

아침의 누림

요일 3:24

24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을 통해 압니다.

요일 4:13

13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압니다.

요 14:23

23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엡 3:17

17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엡 2:21-22

21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 가고 있으며,
22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엡 5:18

18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는 것은 사람을 방탕하게 합니다. 다만 영 안에서 충만해지십시오.

말 2:16m

16 그러니 너희의 영을 주의하고 배신하지 마라.

믿는 이들의 거듭난 영과 하나님의 완결되신 영은 연합하여 한 영이 된다(고전 6:17). ... 오늘날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사람의 생명, 곧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이며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인 생명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사람의 생활은 두 영으로 이루어진 생활, 즉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하나로 함께 연결되고 연합된 생활이다.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4권, 삼일 하나님의

최종 완성된 영과 믿는 이들의 거듭난 영의 연합의 결과, 2 장, 92 쪽)

신약의 본질은 두 영, 곧 신성한 영과 사람의 영이 한 영으로 함께 연합된 것이다.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끊임없이 기뻐할 것이다.(생명의 체험과 성장, 20 장, 16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생명 안의 문제이고, 생명에 속한 문제이며, 생명을 통한 문제이고, 생명과 함께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유기적인 문제이다.

요한복음 연구를 통해 우리는 거하는 문제가 두 영과 관련된 것임을 발견했다.

요한복음 3장 6절은 “...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입니다.”라고 말한다. 이 절에서 처음에 나오는 ‘영(Spirit)’은 ... 신성한 영을 가리킨다. 두 번째로 나오는 ‘영(spirit)’은 ... 사람의 영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6절은 신성한 출생에 두 영, 곧 신성한 영과 사람의 영이 관련되어 있음을 계시한다. 신성한 출생에서 우리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난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사람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창조되지 않은 생명인 영원한 생명으로 성취된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 경배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이 절에 의하면,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 사람의 영 안에서 경배해야 한다. 신성한 출생에 두 영이 관련된 것처럼, 참된 경배에도 두 영이 관련된다. 신성한 출생이 우리 사람의 영 안에서 신성한 영에 의해서 수행될 뿐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경배도 우리 사람의 영 안에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연합된 영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신성한 사실일 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활 전체에 영향을 주는 영적인 요인이다. 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거룩함과 영성을 가질 뿐 아니라, 죄와 세상과 사탄과 우리의 육체와 자아에 대해 승리를 얻는 범위이자 길이다. 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지적인 지체들이 되는 범위이자 길이다. 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과 교회생활을 하는 범위이자 길이다. 우리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원수를 정복하시고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처리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이기 때문이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아무 부족이 없을 뿐 아니라, 오직 그분께서 성취하신 것을 누리는데 말고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과 하나일 때, 그분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체험이 되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와 한 영이신 살아 계신 분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한다. 오십여 년 전에 나는 거룩함과 승리하는 생활과 영성을 추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나는 온갖 종류의 책을 사서 읽고 거기에 명시된 것을 실행하는 데 시간을 쏟았다. 그러나 내가 실행한 것 중 그 어떤 것도 효과가 없었다. 여러 해에 걸쳐 주님은 그분의 긍휼로 우리가 온갖 ‘방법들’에 대한 비결을 발견하게 하셨다. 그 비결은 연합된 영 안에 거하는 것이다.

교회가 빈곤하고 낮은 상태에 있다면, 우리의 거함은 교회가 높아지고 풍성하게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교회의 빈곤한 상태에 대한 참된 해결책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매우 많은 영적인 죽음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의 즉각적인 말씀을 받으며 그분과 함께 거하기 위해 우리의 연합된 영 안에 머물러야 한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9년, 2권, 성경의 심장과 성경의 중심 계시, 3장, 243-244, 246-247, 254, 25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3권, 메시지 56

9/20 금요일

아침의 누림

롬 8:26-27

26 이와 같이 그 영도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 영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직접 중보기도 하십니다.

27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그 영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 영께서 하나님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 6:6

6 그러나 그대는 기도할 때, 그대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시 27:4, 7-8

4 내가 여호와께 청하여 온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주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네.

7 오, 여호와님! 제가 소리 내어 부를 때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저를 은혜로이 대하시며 응답하여 주십시오.

8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실 때에 제 마음으로

주님께 ‘오, 여호와님! 제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하였습니다.

히 4:16

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엡 6:18

18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두고 간구하십시오.

기도는 다만 사람이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접촉하시는 것이다. ... 표준에 이른 모든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상호 흐름과 접촉이 있는 기도이다. 하나님과 사람은 마치 서로 안으로 흐르는 전류와 같다. 기도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람 안에 계시는 문제라거나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문제라고 단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사실과 체험에 따르면,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흐름이다. 참으로 표준에 이르는 모든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상호적인 흐름이 있는 상태를 낳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사람은 실지적으로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은 실지적으로 사람을 접촉하시며,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은 사람과 연결되신다. 그러므로 기도의 가장 높고 가장 정확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상호 접촉이다.(기도 레슨, 개정판, 1 장, 2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어떤 형제나 자매가 기도의 비결을 진정으로 배웠다면 ...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즉,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확실히 하나님과 협력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자신

안에서부터 그리고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과 그분의 갈망을 표현하시도록 허락해 드릴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이것은 로마서 8 장 26 절과 27 절에 따른 것이다. 그 절들은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 안에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말한다. 사실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모른다. 우리는 사람들이 흔히 간청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에 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다. 내가 처음 로마서 8 장에 있는 이 두 절의 말씀을 읽었을 때, 그 의미에 의문을 가졌다. 나는 생각해 보았다. 내가 병이 들었을 때 치료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가? 내가 궁핍할 때 나에게 양식을 보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점차적으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그러한 기도에 관해서는 참으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 주셨다. ... 우리는 하나님의 갈망을 만지고 표준에 이르는 그러한 기도들에 관해 아는 것이 없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그 영 자신께서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다.

진정한 기도는 사람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갈망을 표현하시는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진정한 기도는 양측이 모두 참여하는 기도이다. 진정한 기도는 단지 사람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께서 기도 안에서 사람과 연합하시고 사람을 입으시고, 기도 안에서 사람과 연결되시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내적으로는 그 영께서 기도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양측이 동시에 동일한 기도를 말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자주 엘리야의 기도에 관해 말한다. 야고보서 5 장 17 절은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니, 삼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으며”라고 말한다. 헬라어로 ‘간절히 기도하니’는 ‘기도로 기도하는 것’, 곧 ‘기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양측 모두에게서 나온 기도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는 기도로 기도하고 기도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바꿔 말해서, 그는 자신 안에 있는 그 영의 기도로 기도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안에서 그분 자신께 기도하신 것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앤드루 머리(Andrew Murray)는 언젠가 참된 기도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 기도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자신께 기도하신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의 체험에서 이것은 진정 사실이다.

로마서 8 장 27 절은 “그 영께서 하나님에 따라 ...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에 따라 우리 안에서 기도하심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통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기도는 확실히 하나님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표현한다.(기도 레슨, 개정판, 1 장, 25-2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82년, 1권, 로마서 8 장에 있는 중요한 계시 — 그 영이신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일해 넣으심, 1 장

9/21 토요일

아침의 누림**요 15:7**

7 여러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일 5:14-15

14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갖는 담대함은 바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에 따라 구한다면 그분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15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구하며 청한 것을 그분에게서 받은 것도 압니다.

빌 1:8-9

8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부분들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9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온전한 지식과 모든 분별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요 15:4-5, 12, 17

4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5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2 나의 계명은 이것인데, 곧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같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7 내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들을 명령하는

것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 장 7 절은 ... 네 가지 요점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요점은 “여러분이 내 안에 거하고”이며, 둘째 요점은 “내 말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이다. 15 장 4 절과 5 절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에 관해 말한다. 그러나 7 절에서 주어가 ‘나’에서 ‘내 말’로 바뀐다. 그러므로 7 절은 “여러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한다. 주어가 ‘나’에서 ‘내 말’로 바뀐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실 무언가가 있음을 의미한다. ... 요한복음 15 장 7 절에서 “내 말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한 걸음 더 전진한 것이다. 이 절의 셋째 요점은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이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우리는 무언가를 갈망하기 시작한다. 이 갈망은 주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다. 15 장 7 절의 넷째 요점은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에서 비롯된 갈망이 생기며, 결국 ‘원하는 것’이 ‘구하는 것’이 된다. ... 이렇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응답받을 것이다. (기도 레슨, 개정판, 11 장, 201-20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모든 효능 있는 기도, 곧 주님 앞에서 효과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허락한 결과여야 한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느낌을 만지고 하나님의 갈망을 이해한다. 구약의 아브라함은 이것에 대한 예이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의도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수 없었다. 시편 32 편 8 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눈으로 우리를 안내하신다고 말한다. ... 여러분이 교통 안에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눈으로 우리를 안내하신다는 성경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할 것이다. ... 우리는 다만 교통 안에 살아야 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러야 하며,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성향, 성정, 행하심의 원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주님의 눈빛과 마주치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그분의 느낌을 만지고 그분의 갈망을 이해하게 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느낌을 만지고 그분의 의도를 이해한 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그분의 갈망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순간에 그분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 되고, 그 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의 느낌을 만지고, 그분의 의도를 이해하며, 또한 그분께서 갈망하시는 것을 갈망할 수 있게 된 다음에 우리는 기도한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5 장 7 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원함은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으로 기쁨을 바르신 것에서부터 나온다. 이러한 갈망은 하나님의 갈망이므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구원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 15 장 7 절을 읽은 다음에 “주님의 이 약속은 참으로 놀랍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그분은 그것을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원하는 것에 따라 구하기 시작한다. 결국 그들은 자신이 구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음을 깨닫는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문맥을 무시하고 주님의 약속을 취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먼저 필수적인 요건들을 이행하지 않은 채 기도한다. 그들은 요한복음 15 장 7 절의 의미를 오해했다. ... 우리는 이제 우리의 기도 안에 있는 갈망이 사람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것임을 이해한다. 먼저는 사람이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한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서 말씀이 되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사람 안에 하나님의 갈망과 일치하는 갈망이 산출된다. 그리고 사람이 이 갈망에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 없다. 이러한 기도는 이제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인데"(요 16:24)라는 말씀과 일치한다. 이러한 기도가 바로 주님 안에 거함에서 비롯되는 기도이다.(기도 레슨, 개정판, 11 장, 215-21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83 년, 3 권, 영 안에서 주님과 상호 거하는 삶, 3 장

추가로 읽을 말씀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57

찬송: 1162 (英) 생활의 비결 찾았네 신성한 이상 봤네

1 생활의 비결 찾았네 신성한 이상 봤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속함 보았다네

(후렴)

포도나무 안에 그 안에 거하면 주 생명의 풍성은 내 것!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 두셨으니 결코 떠나지 않으리.

2 포도나무 안에서는 몸부림 필요 없어
이미 그 안에 있으니 할렐루야 다만 거하야라

3 신성한 기름 바름이 안에서 움직이며
하나님 귀중한 본질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네

4 생명 흐름 안에 살 때 밝은 빛 넘치도다
하나님과 사람 거쳐 포도나무 안에서 거하세

9/22 주일

아침의 누림

고후 4:6-14

6 왜냐하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7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8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짓눌리지 않으며, 나갈 길을 찾을 수 없어도 나갈 길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며,

9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10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을 우리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11 이것은 살아 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으로써,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12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합니다.

13 또한 성경에 "나는 믿었기에 말하였다네."라고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영을 가졌으므로 우리 역시 믿고 말합니다.

14 이것은 주 예수님을 살리신 분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분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Churchwide Truth Pursuit of Hebrews

Level 1—Hebrews Sequential Reading

Scripture Reading and Copying: Heb. 11:1-7

Assigned Reading: *Life-study of Hebrews*, msg(s). 52-53

Level 2—Hebrews Topical Study

Crucial Point: Partaking of and Enduring Sufferings by Not Shrinking Back but Having Faith to the Gaining of the Soul

Scripture: Heb. 10:32-39

Assigned Reading: *LS of Hebrews*, msg(s). 44-46

Supplemental Reading: *CWWN*, vol. 11, "The Present Testimony (4)," Living by Faith; *CWWN*, vol. 11, "The Present Testimony (4)," Living by Faith and the Course of Entering into a Truth

Questions:

1. What is the thought behind Heb. 10:32-39?
2. What might cause us to shrink back?
3. What does it mean to "have faith to the gaining of the soul?"
4. What is the "great reward" in Heb. 10:35?